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에 비디오 테이프를 비롯한 시청각 매체의 활용이 늘고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성교육, 모자보건교육 등을 비롯,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디오 상영횟수는 모두 4천2백40번으로 77만 5천7백여명이 이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비디오를 적극 활용하는 곳은 비교적 청소년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 유관단체, 지역단위 놀이방을 비롯, 보건소, 중·고등학교, 교회, 노동조합 등의 사회기관으로 편당 2~3만원의 복사수수료를 내고 보급받거나 무료로 대출받고 있다.

교육용 비디오테이프의 90% 이상을 제작, 각종 단체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스튜디오 운영반장 이충근씨는 "지난해부터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돼 청소년 성교육용 비디오 제작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비누방울〉 〈어른이 되고 싶어요〉 등 총 22편의 청소년 성교육 비디오테이프 중 10편이 87년 이후 제작됐다"고 전한다.

가족계획협회가 받은 복사수수료만 해도 84년 4백28만여원에서 지난 87년 2천4백76만여원으로 5배나 늘었고, 88년 상반기는 1천1백24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또 연평균 2천~3천종이 보급돼 그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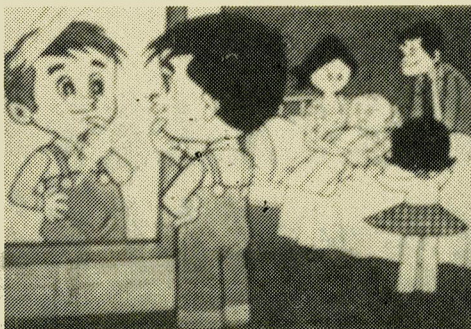
서울간호전문대 최남희(간호학) 교수는 "새로운 매체에 의

성교육용 비디오

청소년 호응 높다

89.8.11

가족계획협회 조사 지난해 4천2백40번 상영 77만5천여명 관람



학교서 적극 활용...토론 통해 호기심 충족 도식적 정보 전달·구태의연한 내용 고쳐야

숙해 있는 청소년들은 슬라이드 보다 동적이고 입체적인 비디오 상영에 흥미를 보인다"며 청소년 성교육에 비디오 사용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지역탁아소인 '밝은 어린이 집'이 마을 청소년들에게 42분 짜리 비디오 〈비누방울〉을 틀어 주자, 국민학생이 섞인 청소년 21명이 꼼짝하지 않고 화면을 지켜봤다. 〈비누방울〉은 청소년기의 심신변화, 남녀 생식기 구

조와 생리현상, 임신과정 등을 그림과 전문가의 설명으로 엮은 것이다. 비디오 상영이 끝나고 가진 토론시간에 "저는 키가 큰 데도 작은 아이들보다 가슴이 덜 나왔어요, 저보고 비정상이라요" "가슴은 언제부터 커지나요" 등 국민학교 학생들이 활발하게 질문을 하는 등 호기심을 나타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명이 비디오상영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고 7명이 새로운 성지식을 갖게 해 주었

다고 응답했으나, 성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부모님들이 '화를 낼 것이다' '놀랄 것이다'는 응답이 13명이나 됐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열린교회〉에서도 중·고생 20여 명이 낙태의 과정을 다룬 20분 짜리 비디오 〈이성의 소멸〉(마리아수녀회 제작)을 본 뒤 30여 분간 열띤 토론을 벌이고 낙태는 살인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비디오테이프는 성에 따르는 책임을 일깨워 준 것으로 평가

됐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의 성교육을 맡고 있는 구로의원 상담실 정여진(29) 조사연구원은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드물고, 지금까지 나온 비디오나 슬라이드가 성에 대한 정보를 너무 구조적이고 도식적으로 다뤄 흥미를 끌기 어려우며 내용도 정조관념을 주입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슬라이드는 재편집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 청량고등학교 양호교사 최재선(28) 씨는 "고교생들의 관심이 성병의 증상 등 매우 구체적인 데 집중되고 있으며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력해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의 호응도 높고, 30~40명 안팎이 관람할 수 있어 토론도 할 수 있고 교육적 효과가 큰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민간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디오물의 주요 보급처나 무료대출기관은 대한가족계획협회(634-8211), 청소년연맹근로자 종합복지관(685-4943), 서울시 교육연구원(735-9290), 마리아수녀회(355-0326), 인천 중앙도서관(032-423-3303), 서울기독교청년회(732-8291),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0345-6-7335), 충남 온양시 교육구청(0418-2-2607), 대구 시립종합복지회관(053-623-0421), 제주도 교육위원회(064-27-2423) 등이다.

〈박근애 기자〉